

2025년 사순 시기 찬미받으소서 강론 자료

## 생태 위기는 깊은 내적 회개를 요청합니다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그 첫날에 우리는 머리에 재를 얹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죽음을 떠올리며 유한한 인간의 운명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도 아니고,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언젠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느님 앞에 나아갈 그때를 위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한함에 대한 자각과 겸손함, 내적인 회개는 안타깝게도 기후 문제에까지는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4년은 기상관측 사상 지구가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점점 내몰리는 중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아이들은 커다란 고통과 불안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교황님께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2015)와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2023)를 통하여 계속해서 교회와 세상을 향해 생태적 전환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나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강조하지만, 사회 문제는 언급하기 어려워하는 교회 내 풍조와 더불어 기후 문제 역시 함께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신앙의 기원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상대로, 양심과 지성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 세계를 “일구고 돌보게”(창세 1,15)하는 관리자 소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래 하느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지성과 양심으로 피조물을 돌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소비지향적 자본주의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물론 덕분에 우리는 세상 창조 이래로 가장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작동하려면 지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자연을 개발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이 생산과 소비를 반복하기 위해 멸종한 것들도 폐기합니다. 즉, 우리는 “버리는 문화”(찬미받으소서, 22항)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공존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야생의 터전을 개발해 들어갔고, 여기에 급격한 기후변화가 겹치며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는 중입니다. 이미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는 지난 2019년에 인류가 주범인 6차 대멸종을 경고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 터전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존재는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매우 많은 생물종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찬미받으소서, 33항)

그러므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생태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피조물을 지키는 데에도 신앙인의 소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부터가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 생태적 회개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피조물에 대한 책임과 연대 의식을 가지고 기후위기를 막아냅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소명입니다.

##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20명 중 주일미사 180명 참례 / 참례율 : 25%

평일미사	토 (3/8)	월 (3/10)	화 (3/11) 내촌 / 본당	수 (3/12) 본당 / 송정	목 (3/13) 송정 / 본당	금 (3/14)
	15명	14명	19명 / 23명	21명 / 19명	12명 / 27명	22명
주일미사 (3/9)	내촌 공소	토요일 저녁	두촌 공소	송정 공소	교중미사	철정 공소
	26명	16명	28명	26명	59명	25명

## 우리들의 정성 사순 제1주일

주일 헌금	1,184,500	교무금	2,155,000	감사 헌금	100,000
양성, 복지, 원로	223,000	성전건축 적립금	363,000	미래 기금	154,000

**교무금** 엄금순, 지순례, 장혜분, 최윤정, 최용범, 원승현, 최미경, 정현희, 장명숙, 함연하, 김태호, 김남수, 김정자, 김주하, 전웅기, 정하숙, 원운자, 최정규, 최삼순, 박영수, 소옥선, 김부용, 서정화, 박희갑, 이향숙, 김승옥, 조인순, 이기영, 임옥자, 전지선, 신현수, 박영미, 신정호, 이천희, 이하나

**감사헌금** 익명 100,000